

미국의 축구 여자월드컵 3연패 좌절시킨 '1mm'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의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미국이 지난 6일 호주 멜버른 렉탱글러 스타디움에 열린 스웨덴과의 16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5대 4로 패하며 월드컵 3연패에 실패했다. 이날 승부는 골라인 판독기에 의해 가려졌다.

이날 경기 결과는 '1mm에 패했다'는 말로 요약된다. 이 장면은 연장전까지 0대0으로 맞선 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나왔다. 두 팀은 '11m 러시안롤렛'에 비유되는 잔혹한 승부차기에서도 4대4로 맞섰다.

미국 골키퍼는 스웨덴의 7번째 키커의 공을 막으며 승부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골라인 판독기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14대의 카메라가 포착한 앵글을 종합해 보면 공은 골라인을 살짝 벗어나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스웨덴은 이 판독으로 승부차기에서 5대4로 이겨 8강에 진출했다.

기록을 내세운 스포츠도 아닌데 축구도 이젠 숫자가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 지난해 12월 카타르 월드컵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일본은 비디오판독이 선물한 '1mm의 기적'에 흥분했다. 스페인과 맞선 조종리그 최종전, 미토마 가오루가 크로스한 공은 골라인을 벗어난 듯 보였지만 판독 결과 1mm 정도 걸쳐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그 장면에서 골을 얻어냈다. 일본처럼, 스웨덴도 이번 여자 월드컵에서 1mm 선물을 받았다.

비디오 판독이든 골라인 판독이든 공을 추적하는 시스템은 동일하다. 여러 대의 카메라가 포착한 여러 각도의 앵글을 종합해 공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심판의 판정 시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고 갖가지 논란을 상당 부분 잠재우고 있다.

그러나 그 정확함이 곧 완벽함을 의미하진 않기에 논란도 따라붙는다. 판독 시스템의 오차범위는 이번 월드컵



▲ 미국 여자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패한 뒤 서로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서도 몇 mm인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미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이번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16강전 탈락이라는 최악의 성과를 내지만 미국 축구협회와 맺은 '단체협약'으로 인해 역대 최대 상금인 731만2,500달러를 받게 됐다.

단체협약은 지난해 미국 축구에 대한 여성들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평등 노동 협약의 일부이다. 이 협약의 세부사항은 협회에게 돌아가는 10%를 제외하고 남자 대표팀과 여자 대표팀이 각각 월드컵에서 받은 상금을 합한 후 똑같이 나눠 가져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협약에 따라 두 대표팀의 상금은 합쳐진 후 똑같이 배분돼 각각 731만2,500달러씩 돌아갔다. 각각 월드컵에서 두 대표팀 모두 16강에 올라갔음에도 상금의 규모가 다른 까닭은 남자 월드컵의 상금이 여자 월드컵의 상금보다 4배 많기 때문이다.

한인이 운영하는 청소재료상 중 가장 큰

Brother's 청소재료상

Janitorial Supplies

도매 최저가격

무료배달

가정용 청소기구 재료에서부터
큰 빌딩 청소 각종 기구,
재료까지 완벽하게 구비!

각종 청소기계 수리 전문!
최신 청소기계 재료 다량 확보

각종 새로 개발된 청소약품
화장지 / 각종 종이 / 타일 / 대리석
카펫 샴프 기계 / 왁스 기계
최신형 장비 일절 구비

Open : Mon-Fri 9am-6pm / Sat 10am-4pm

(562) 920-9090
(562) 920-9595

Fax. 562-920-9596

16211 Bellflower Blvd. Bellflower, CA 90706

용문루

GRAND OPENING

Authentic Chinese Korean Cuisine
Eat Good, Feel Good

각종 파티 및 단체 모임 환영
파티룸 10~50명 수용 가능

* waiter, waitress 구합니다.*

용문루 T.626.363.4961
www.yongmoonlu.com

월,수,목,금 11:30am ~ 3:00pm
4:30pm ~ 9:00pm

토,일 11:30am ~ 9:00pm

19240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91748